

## 노형욱 장관, “국제교통 분야 한국의 위상 강화해 나갈 것”

- 4일 OECD 국제교통포럼(ITF) 김영태 사무총장 면담
- 사무총장 재선 지원 및 한국과 ITF 간 상호협력 강화방안 논의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4일(수)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제교통포럼(ITF) 김영태 사무총장을 면담하였다.

- 국제교통포럼(ITF,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)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산하 교통 분야 국제협력과 글로벌 의제(agenda, 어젠다) 형성을 지원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, 온실가스 감축, 자율주행 기술, 공유경제 등 세계 교통분야의 다양한 담론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이다.
- 김영태 사무총장은 ‘17년 6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OECD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에서 사무총장(장관급)에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국제교통포럼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교통을 이끌어 오고 있다.

\* ITF에는 총 6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중, 우리나라는 '07년 정회원국 지위획득

\*\* ITF 사무총장은 OECD 내 경력직(A1~A7) 최고 직위(A7)이며, 김영태 사무총장은 해당 직위에 한국인 최초로 당선(5년 임기, 1회 연임가능)

□ 이번 면담은 ‘22.8월 김영태 ITF 사무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,

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 재선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한국의 국제 교통분야 위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사된 것이다.

□ 노 장관은 김영태 사무총장의 임기 중 국제 교통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통포럼의 노력에 감사의 표를 표하며, 김영태 사무총장의 재선 관련 일정과 계획을 청취한 후 “김영태 사무총장의 재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하였다.

- 김영태 총장은 국제교통 분야 한국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제교통포럼 내에 한국 주도의 혁신교통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,

도심항공교통(UAM), 드론 등 미래 교통 관련한 정책 어젠다 개발, 규범형성 연구방안을 제안하였으며, 노 장관은 이와 관련한 재원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다각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.

- 아울러, 노 장관은 “ITF와 한국간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, 미래교통과 관련한 정책개발, 기술규범 형성, 세계 표준 선도 등 국제교통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노 장관은 면담을 마치며, 김영태 총장에게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교통정책들이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과 국제교통포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였다.

2021. 8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